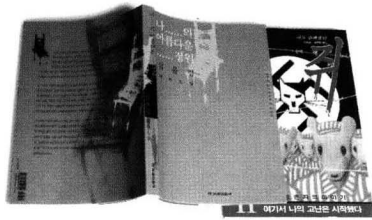


용.성.아.

《쥐》처럼 보잘 것 없는 삶도,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된단다!



조주희 | 서울 대광고등학교 교사

삶은 만만치 않다. 질기고 모질다. 그래서 꼭 꼭 살아야 한다고, '삶' 이란다. 오죽했으면 대 시인 푸슈킨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며 한탄했을까.

17살 용성아도 세상이 버겁다. 학교는 더욱 힘들다. 국어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라고 들어와서는 매번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책만 읽히고, 수행평가를 뒤달하고, 공부 하라고 재촉만 한다. 도대체 왜 '하라!'는 내용만 많은지! 다 한다고 대학갈 수 있을까? 공부엔 취미가 없다. 하고 싶은 낙서를 하다가 결국 걸리고 말았다. 울컥하는 맘으로 공책을 던지듯이 제출했다. 반항이라고 혼났다. 결국 교무실에서 반성문을 써야 했다. "내가 이 세상에 없길 바란다"라고 썼다. 선생님이 매로 책상이 부숴져라 내리치셨다. 그날, 용성아는 울었다.

그렇게 용성아를 버겁게 한 나도 삶이 녹록치 않다. 떠드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야 하고, 책을 읽으라고 올려야 하고, 수백 장이 넘는 수행평가도 일일이 검사해야 한다. 수업도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하루 종일 종종거린다. 뿐인가. 울컥하는 남학생들도 불러다 혼내야 한다. 그런데 그 학생이 "자신을 포기해달"란다.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열거했

다. 그날, 나는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

참 삶은 어렵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어렵다. 학생도 어렵고, 교사도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고 묻는다면 웃지요"라는 시구처럼, 그 해답은 표현하기 어렵지만.

《쥐》만도 못한

유.태.인.의. 삶.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일이다. 시험 마지막 날이었다. 반장 아이가 유독 어색했다. 손모양이 뻑뻑한 것이 설마 했는데, 손에 쪽지가 보였다.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숨기지도 못하고 얼어 버렸다. 규정대로 시험시간이 끝난 후, 아이를 데리고 생활지도부로 향했다. 갑자기 아이가 내 손목을 부여잡았다. "선생님!! 한번만 봐주세요!" 너무나 절박한 목소리와 눈빛. 나는 자주 그 아이를 떠올린다. 그 이후 시험이 더 큰 고통으로 각인되진 않았을까. 심히 두려워진다.

《쥐》에는 고통 투성이다. 어울리지 않게 만화책이다. 그것도 유태인 학살이라는 묵직한 내용을 가지고. 보통의 만화책을 상상하면 안 된다. 첫 장부터 알 수 있다. 열 살 무렵의 주인공이 말한다. "제가 넘어졌는데

요. 친구들이 절 놔두고 가버리잖아요." 아버지가 말한다. "그 애들을 방 안에다 먹을 것도 없이 일주일만 가둬놓으면 그뻘 친구란 게 뭔지 알게 될 게다." (6쪽)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말문을 막아버리는 《쥐》.

이야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다. 늙고 비열한 테다가 찢돌이에 결벽증까지 있는 아버지는 자신의 청년 시절을 들려준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아버지의 녀두리다. 표지에 적힌 그대로 《쥐》는 "아버지에게 맺혀 있는 피의 역사"를 숨김없이 보여준다. 실제로 《쥐》는 아트 슈피겔만과 그 아버지의 실화이다.

하지만 《쥐》에는 사실, 그 이상이 있다. 작자는 지적한다. 고통이란 작건 크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아버지의 고통과 견줄 것은 없다. 그럼에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줄곧 짜증을 낸다. '과거' 아버지의 고난보단, 예민한 아버지 때문에 힘든 '현재' 자신의 고통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과거'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한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현재' 나도 그 아이를 반추하며 고민한다. 그렇게 삶 속엔 자기 분량의 고통이 꼭 있기 마련이다.



《쥐》(2권) 아트 슈피겔만 지음 | 아람드림미디어 | 158쪽 | 값 6,000쪽
 《나의 아름다운 정원》심윤경 지음 | 한겨레신문사 | 278쪽 | 값 8,000쪽

그래, 고통스러워도 삶은.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

반성문을 쓰던 날, 용성이는 나와 약속을 했다. 일기를 매일 써와 검사를 받겠다 했다. 다음 날, 1교시 전까지 가져오라고 했다.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조금 낙심됐는데 화장실 간 사이 일기장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나는 그 밑에 뽁뽁하게 글을 썼다. “이제 변화에 대한 모든 건 용성이에게 달렸다”라고. 다음 날, 용성이는 빈손이었다. 두고 왔단다. 종이를 주며 쓰라고 했다. 돌아가는 용성이 뒷모습은 불안했다. 다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더지게 마련이다. “변화하겠다”는 마음은 오직 용성이에게 달린 셈이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초등학교 ‘한동구’의 삶의 고백이다. 가난한 산동네에, 머느리를 쥐 잡듯 잡는 할머니와 히스테리로 가득 찬 엄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엄마를 닮고 때리는 아빠. “못 살겠다!”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착하다. 엄마를 사랑하고, 똑똑한 동생 영주를 끔찍하게 여기고, 할머니와 아빠가 미워도 욕할 줄 모른다. 동생 영주가 엄마가 힘겹게 만든 카스테라를 망쳐도 다 자신이 뒤집어쓴다. 동구는 자신이 동

생보다 크니깐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동구는 미련하다. 4학년이 되도록 글씨도 못 써서 더욱 그래 보인다. 착한 동구는 모든 것이 제 탓이다.

이때 박영은 선생님은 말한다. “선생님은, 동구처럼 착한 아이는 처음 보았어.” 적어도 동구는 박 선생님에게겐 미련 곰팡이가 아니다. 글을 못 읽는 것도 바보도 아니다. 단지 난독증難讀症을 가진 아이일 뿐이다. 동구와 박 선생님은 한글을 천천히 공부한다. “ㄱ은 그림, ㅋ은 코딱지” 식으로. 결국 동구는 한글을 깨친다. 선생님 편지를 가족 앞에서 읽는다. 울음바다가 된 가족. 이젠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동구는 희망 뒤 고통을 맞이한다. 박 선생님도, 동생 영주도 모두 떠나간다. 박 선생님은 광주사태의 희생이 되고, 영주는 동구의 목마에서 떨어져 마당에 시뻘건 선혈만 남기고 사라진다. 가족은 서로를 비방한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여전히 착하다.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방안을 내놓는다. 그 속엔 동구의 조그만 희생이 있다. 동구는 불만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동구에겐, 짐스런 삶도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 누구나 고통은 있다. 그러나 함께 하기에 고통은 작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고난이 있어도 따스한 책이다.

나의 불안과 달리 용성이는 단단하다. 매일 일기를 써온다. 일기는 점점 길어진다. 오늘은 한 여자 아이가 집 앞에서 고백했다는 내용이 써 있다. 받아줘야 하나, 고민이란다. 나는 뭐라고 써줄까 고민중이다. 삶을 잘 사는 비법은 모른다. 스스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통도 행복도 다 자기 것이 되는 가 보다. **주필**

이 글을 쓴 조주희 선생님은

현재 대광고등학교 국어교사이며 문학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대학교와 대학원시절 CBS 다큐멘터리 작가, 리포터, 《여성동아》 자유기고가로 활동한 바 있다.